

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9.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佛 법원, 텔레그램 CEO 「파벨 두로프」 기소
 - 8.29 언론은 전 세계적으로 SNS를 이용해 테러, 마약 등 각종 범죄가 폭증하는 가운데,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「파벨 두로프」를 佛 법원이 기소했다고 보도

미주

- 美 FBI, 「트럼프」 총격범 조사 결과 광범위한 공격 기획
 - 8.29 美 연방수사국(FBI)은 지난달 「트럼프」 前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한 총격범 「토머스 매슈 크룩스」가 범행 계획 과정에서 「바이든」 대통령 행사와 민주당·공화당 전당대회도 찾아봤다며 광범위한 공격을 기획했다고 발표
- 이스라엘 軍, UN 구호 차량에 총격
 - 8.29 언론은 가자지구 내 통행을 위해 검문소 접근 허가를 공식 승인받은 UN 구호 차량을 향해 이스라엘 軍이 반복적인 총격을 하였으며, UN은 가자지구 피난민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
 - ※ UN은 직원 안전을 위해 가자지구 내 구호 활동을 잠정 중단하였으며, “이스라엘 당국에 가자지구 내 구호 활동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” 한다고 발표

중동

- 하마스, 이스라엘인 70여 명 억류 중
 - 8.28 언론은 작년 10월 이스라엘을 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됐던 인질 250여 명 가운데 10개월 동안 구출된 숫자는 8명에 불과하며, 아직까지 70여 명의 인질이 억류되어있다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○ 유로폴-뉴질랜드, 범죄와 테러리즘에 대한 협력 강화

- 8.28 유로폴은 뉴질랜드와 심각한 조직 범죄와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해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*을 맺었다고 발표했으며, 兩側 간의 협정은 올해 8월 15일에 발효되었다고 부언

* 同 협정은 △정보교환 및 데이터 보호 △데이터 주체의 권리 △감독기관 설립 △행정 및 사법적 구제에 관한 조항이 포함

○ 파키스탄 軍, 대테러작전으로 발루치스탄 해방군(BLA) 5명 사망

- 8.30 언론은 파키스탄軍이 최근 발루치스탄州에서 연쇄 테러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발루치스탄 해방군(BLA)* 대상 대테러작전을 수행했으며, 이 과정에서 테러리스트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고 보도

* 발루치스탄 해방군(Balochistan Liberation Army)은 파키스탄·아프가니스탄 內 발로치族의 독립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, 미국('19), 영국('06), 파키스탄('06) 테러단체로 지정

○ 韓, EU와 대테러 협력 강화 합의

- 9.3 언론은 韓·EU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테러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, 양측은 무인기 위협 실태와 대응전략, 화생방 위협 상황별 영향평가 및 안전 관리 대응 대책 등을 공유했다 보도

* 특히 무인기와 화생방 위협 발생 시 한·EU 간 실질적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대테러센터는 다양한 방식의 협력 정례화 및 공조 강화하겠다고 부언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살인·납치 등 빈발

- 9.2 언론은 나이지리아에서 활동 중인 '풀라니族 민병대'가 민간인 중 특히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살인·납치 등 자행, 지난 4년간 1만 6천 여명(무슬림 사망자 대비 2.7배)을 학살하였다고 보도

※ 아프리카 종교자유 관측소는 "ISIS에 의한 피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, 풀라니族 민병대가 전체 민간인의 최소 40% 이상을 죽였다"고 언급

역사 속 테러사건

Weekly Terrorism Trends

9·11 테러 발생 23주년 계기 기밀문서 공개 관련 동향

- '01. 9. 11 알카에다 소속 테러리스트가 캘리포니아주로 향하는 여객기 4기를 하이재킹하여 자살 테러공격을 자행, 2,996명이 사망하고 약25,000여명의 부상자 발생



※ 美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는 9·11테러 이후에도 구조대, 경찰, 봉사자 등이 건물잔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해 암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보고

- 테러리스트들은 납치한 항공기를 뉴욕 '세계무역센터', 워싱턴 DC '펜타곤(국방부)' 등 미국의 주요 건물에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공격

- 최근 희생자 유족 소송과정에서 '사우디 정부가 테러에 개입되었다'라는 주장이 언론*을 통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추후 국제 정세에 관심

* 당시 테러 조사과정에서 사우디 정보국의 비공식 정보요원인 「알-바유미」의 자택에서 비행기 스케치, 美 국회의사당 영상과 계획을 언급한 촬영본이 발견되었으며, 2000년초 테러범 2명을 LA에서 만나 현지 정착을 도왔다고 보도

- 사우디 정부 변호인은 해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'유가족 소송에서 사우디가 배제되어야 한다'고 주장

⇒ 9·11테러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사례 및 조치사항을 상기하여 국가 대테러 정책 수립時 착안

테러 단체

Weekly Terrorism Trends

< 알카에다(AQ) >

- (목표·결성) 쏘세계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 및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「오사마 빈라덴」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던 각국 출신 對소련 항쟁 참전자들을 규합해 '88년 결성
* 테러단체 지정 : UN('10.10), 미국('99.10), 캐나다('02.7) 등
- (연계세력) 탈레반, 예멘 알카에다(AQAP), 이슬람·무슬림 지지그룹(JNIM) 등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·파키스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소말리아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유 호텔 폭탄테러(사망 26명, 부상 56명)
'05.7 영국 런던 지하철과 버스 연쇄 폭탄테러(사망 56명, 부상 770명)

